

테마칼럼

이승로의 초대

이재창의 회상

빛고을에 살며

광주에 대한 이야기

광주·전남을 의료관광지로 키우자



안톤 솔츠

서울에 유명한 병원이 다 있지만 대기오염에 가장 스트레스 심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곳도 서울이다. 좋은 음식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펼쳐진 광주와 전남 같은 곳이 의료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지역의 한 치과병원에서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3시간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사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에 순변을 매졌을 때 맨 앞에 나올 일이다. 그래서 막상 치료받기를 결정하고 치과의자에 앉는 순간까지도 눈을 감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 와중에 의뢰서비스를 받으며 든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한국에서 살기를 잘한 것 같다(물론 한국에서 의뢰서비스만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는 것이다.

의료과학이 매우 발달한 독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사실 독일이 의학이 우수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난 10년간의 커다란 진보로 서양의 의료기술을 따라잡았으며 새롭게 도래한 의뢰서비스 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의료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독일보다는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독일에서 의사와의 치료예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권위 있는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보통 3주나 한 달 이상 전에 나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병원에 가서 그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돈은 또 어떠한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보통 의사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 같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돈과 관련한 큰 차이점은 한국의 납부보험은 의료보험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비를 내

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법률상 개인소득의 14.6%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비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그러기 싫다면 더욱더 비싼 사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대로 따져볼 일이다.

실제로 매달 얼마나 되는 돈을 의료보험비로 지불하고 있는가. 수입의 약 15%를 납부하고 있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을 의료보험비로 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물론 독일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많은 의료보험비를 국가가 받는 만큼 암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료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치료가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가. 치과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독일의 치과에서는 치료비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의사를 선택할 수 없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치료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이와는 다르다. 현재 나의 경우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비를 납부하면서 추가 의료혜택을 위해 가입한 사보험비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보다 적은 의료보험비를 지불하면서도 한국에서 훨씬 나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한국의 의뢰서비스는 또 어떠한가. 단연코 말 하건대, 대체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싶다. 의사와의 진료를 기다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이다. 의사들은 대부분 친절하며 치료결과도 역시 좋다.

나의 경우로 다시 예를 들자면 수년 전 한국과 일본 불교사찰에서 몇 년 동안의 수행으로 무를관절 모두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불가피했던 적이 있었다. 특히 왼쪽 무릎 상태가 심각해서 주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는 저명한 무를관절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내 기억으로는 처음 그 전문의와의 진료약속을 잡는 것으

로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총 3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수술 결과는 수술 후 일 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명상과 태권도 활동을 포기해야 할 만큼 계속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후 똑같은 수술을 한국에서도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나의 오른쪽 무릎이었다. 처음 의사와의 진료부터 수술까지는 일주일일 채 안 걸렸다. 수술 다음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어떤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야 했지만 그 총액은 그리 많지도 않았고 독일에서의 수술 후 겪은 일 년간의 통증을 비교해 보자면 그 금액은 문제도 아니었다.

최근 나는 칼럼을 통해서 한국의 문제점만을 지적해 왔는데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뛰어난 의뢰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요 근래 회자되고 있는 의료 관광산업의 목적지로서도 적합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서울에 크고 유명한 병원이 다 있지만 심각한 대기오염에 가장 스트레스 심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곳도 알고 보면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뛰어난 의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음식과 더불어 휴식과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펼쳐진 광주와 전남 같은 곳이 의료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언어장벽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말이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혁신도시 조성 '세종시 논란' 재판 안 패야

나주에 들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업무가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사 신축부지 현장을 답사한 한국 농어촌 공사 관계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15%로 전국에 조성되고 있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진척이 빠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원지인 혁신도시 '세종시 논란'의 와중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혁신도시 내 11만5천466㎡의 부지에 본사 임직원 760여 명이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기관들의 부지매입과 청사 신축이 급선무다. 현재 이전대상 기관 중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곳은 10곳에 달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유통공사(직원 627명·연 예산 1천597억원) 한 곳만이 가계약(20억원) 상태로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직원 2만여명에 연 예산만 35조 9천700억원으로 이전대상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의 부지 매입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전력의 부지매입은 자회사인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의 이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일부 기관들이 상당수 직원을 서울에 잔류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쾌적한 정주환경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여건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만의 장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문예기금 광주가 펼쳐 '문화 수도' 부끄럽다

광주시 문화예술위원회(타시도는 문화재단) 기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한다. 정도가 아니라 타시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형편없는 규모다. 이는 문예기금이 지역민과 지자체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수도'와 '예향'을 자처하는 광주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문화재단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9개 시도이며, 전북과 경남 등 4개 시도는 내년까지 출범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 규모다. 광주의 문예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49억원에 불과하다. 서울(1천126억원), 경기(1천30억원) 등 수도권은 제쳐 놓고라도 재정자립도, 인구,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광주보다 훨씬 못한 강원(176억원), 제주(127억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겨우 흥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광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광주 문예기금은 2004년 출범 당시 45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단 4억 원만이 늘었을 뿐이다.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 기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수 십억원의 기금을 내놓는 타시도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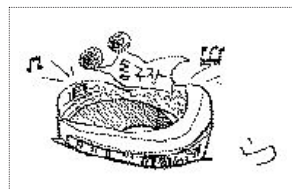
문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광주문진위도 문제다. 문진위가 지금까지 자체 확보한 기금은 단 1건도 없다.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연구에 게을리했다는 방증이다. '문화수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문화전당이 들어선 지역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광주시와 문진위는 문예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시민과 지역기업들도 문예기금 기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주 KIA 타이거즈와 두산과의 광주 홈경기장을 보려고 무등경기장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KIA의 1위 독주로 관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연일 매진사례란다. 집에 돌아와 중계방송이라도 볼 요량으로 TV 앞에 앉았다. 경기가 점차 열을 올릴수록 짜증과 짜증이 해설가의 말이 귀에 꽂힌다. "광주구장은 비만 오면 라커룸이 줄줄 샌다. KIA의 1위가 확정되면 이곳에서 한국시리즈가 열릴 텐데 참으로 부끄러울 일입니다."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얼골이 화끈거렸다. 프로야구가 열리는 구장 중 시설 면에서 으뜸은 인천문학구장이다. 그 다음이 잠실구장이고 광주구장이 가장 열악하다.

자야구해설을 하게 된 사연. 메이저 리그 이야기 등 시간가는 줄 몰랐다. 말로만 들었던 정 지명자의 야구에 대한 식견과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야구를 잘 아는 총리라 해서 야구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더욱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야구장 건립 사업은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아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돛구장



지난 7월 광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은 10월에 야구장 신축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탄탄하고 내실있는 준비가 되고 있으리라 믿지만 이번 기회에 좀더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광주구장을 돛구장으로 지으면 어떨까.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광주의 랜드마크가 된 돛구장에서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를 보고 싶다. /김일환 여론대처부장 kih8@

최근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이 총리에 지명되자 야구계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상당하다. 필자는 4개월여 전 교과부 공청회에서 정 총리지명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공청회 시작 전 티타임 자리였는데 주된 대화는 야구 이야기였다. 정 지명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철수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자주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서울 가기 전날 조금 피곤하더라도 '기차에서 잘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참을 즐기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 때문에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화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

몇 해 전에 유럽여행중 프랑스 리옹의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을 아주머니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1달터 팁을 주면서 들어가고 했지만 알아 들을 수 없는 프랑스 말을 계속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한참을 아주 난감해 하고 있는데 손을 씻던 젊은 서양 여자가 '여행하는 중이냐? 어디에서 왔나?' 등을 묻고 토

자그마한 배려

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아니라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기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족들과 통화하는 것으로 '어느 식탁으로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고민은 얼마가 될 것이다.'등등. 승무원이 와서 제지를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가을 초입에 등산은 행복에 행복을 더해 주는 겁니다. 부드럽고 상큼한 가을 바람이 온몸을 스치며 새벽 차디찬 맑은 물로 영혼이 씻겨지는 기분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맑은 산과 하늘을 보면서 명상하는 분, 책을 읽는 분, 혼자 고요함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니다. 그런데 불뿔을 높여서 고성방가 수준의 트로트 음악 소리는 아주 알뜰한 해방 끈입니다.(제발 이어폰을 사용해 주세요)

큰 하나를 주면서 그것을 자동개폐기에 넣어야 화장실 문이 열린다고 안내하고 좋은 여행을 받다며 헤어졌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아침 리옹역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면으로 보나 선진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사회의 배움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사실 배려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즉 내가 받아서 싫은 것을 굳이 남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자그마한 1mm의 배려는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세상 변화의 시작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라' 그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6, 12) <산수동성당 주임신부>

기고



이상욱

현대인은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 사는 시간이 많다.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고 오염된 공기로 인해 지구가 변해 가듯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가정과 가족들로 가정이 변해 간다. 말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가족보다는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음악 행사도 있었다. 2009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사랑해

열렸다. "할아버지 이거 풀면 안돼요?" 나비 베타이를 맨 손자는 목을 조이는 베타이가 갑갑하다는 표정을 지어 가족 30여 명이 출연한 사과나무팀을 대상 받고 축하파티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며 축하객들에게도 함께 가져다 손을 잡는다. 일본인 엄마와 함께 나온 토토로팀이 친구들과 핸드폰기행 촬영 하느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광주 가족음악페스티벌을 마치며

요, 노래해요'란 주제로 9월 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의 예선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지역 최초의 '시민음악회'였다. 이번 음악 페스티벌 예선은 매회 일천여 명이 참가하여 등수에 관계없이 즐긴 '여름날의 축제'로 시작되었다. 솔바람이 부는 주말을 맞아 본선을 관람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모듬엔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따스한 가족애를 함께 행복하며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페스티벌이 끝났는데도 일어 설 줄 모르는 시민들은 기념 촬영하는 자랑스러운 참가자들의 따스한 가족애를 보내 주었다. 마치 자신들의 가족들이 입상한 것처럼 진솔한 축하를 전했다. 관객과 참가자들은 헤어지기 싫어 다시 로비에 모여 함께 합창을 하는 2차 가족잔치가

광주·전남은 옛부터 가족문화가 가장 끈끈한 고장이다. 광주시가 가족문화 창조를 위해 마련한 2009가족음악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가족들의 잔치였다. 한 가족, 다문화가족, 이웃사촌을 대상을 받고 축하파티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며 축하객들에게도 함께 가져다 손을 잡는다. 일본인 엄마와 함께 나온 토토로팀이 친구들과 핸드폰기행 촬영 하느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가족음악페스티벌은 시민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이어주는 탁월한 발상이다. 이 페스티벌을 광주광역시사의 대표적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이 가족음악페스티벌이야말로 가장 전라도적이며 광주적인 축제가 될 테니까! <2009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수학, 문과·이과 구분 없이 필수로 가르쳐야

얼마 전에는 조카와 함께 요즘 바뀐 대입제도와 대학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요즘 고3 학생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대학생들의 마인드를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요즘 학생들은 수학 같은 힘든 과목 근처에도 안 갈려고 하고 취업 위주, 공부하기 쉬운 과목, 학점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학의 중요성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문명의 기초는 수학에 있다. 수학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연간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절반 정도라도 연수나 취업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학생에게 수학 II까지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21세기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장동동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요즘의 대세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넘어가 버렸고, 연구결과로는 금세기 안에 우리나라에 겨울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부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김치를 담글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간과하는 경우를 많

이 본다.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껍질들은 쓰레기가 되어 그냥 버려진다. 하지만, 이걸 잘 말려 밑포기에 넣어 뒀다가 꽃이나 나무를 분갈이할 때 거름으로 쓰면 쓰레기가 훨씬 줄어든다. 또 과일껍질 역시 모아서 말렸다가 똑같이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무공해 퇴비도 만들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가정에서의 손길 하나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할 수 있다. ▲이슬·목포시 영해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本誌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茂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7-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